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전경구 김교현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대구대학교 충남대학교 국립목포병원 순천향대학교 전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대처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3개의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초기에 척도 문항의 선별은 대처에 관한 선행적 모델과, 국내와 국외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대처 척도 문항과, 대처에 관한 개방식 질문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1에서는 230명의 성인에게 122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척도를 실시한 결과 36문항으로 구성된 9가지 대처 방식이 신뢰롭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적절한 문항의 선택은 요인 분석과 내적일치도의 결과에 기초하였다. 연구 2에서는 345명의 대학생에게 9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실시한 결과, 39문항으로 구성된 10가지의 대처 방식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3에서는 811명의 대학생에게 10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실시한 결과 64문항으로 구성된 15가지의 대처 방식이 신뢰롭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개의 연구를 통해서 의미있게 나타난 대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인적 대처 원), 적극적 대처, 소극적 철수, 정서 표출, 적극적 망각, 고집, 긍정적 해석, 긍정적 비교, 동화, 체념, 자제, 자기 비판, 정서적 진정; (사회적 대처 자원),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정서적 지원 추구; (종교적 대처 자원), 종교적 추구. 끝으로 연구 결과를 스트레스와 대처라는 맥락에서 논의를 한 후,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최근에 대처 연구가 스트레스와 적응이라는 맥락에서 핵심적 주제로서 나타나고 있다(Aldwin & Revenson, 1987; Kessler, Price, & Wortman, 1985). 대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대처 여부에 따라서 적응 또는 부적응이 초래된다

* 이 논문은 부분적으로 1993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 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는 이론적 배경(Lazarus, 1981)과 함께 실증적으로도 대처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신체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Endler & Parker, 1990). 이러한 대처 연구의 중요성에 상응하여 다양한 대처척도가 개발된 바 있다(Amirkhan, 1990; Billings & Moos, 1981;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Dize-Lewis, 1988; Endler &

Parker, 1990; Folkman & Lazarus, 1988; Frydenberg, 1994; Hobfoll, Dunahoo, Ben-Porath, & Monnier, 1994; McCrae, 1984; Pearlin & Schooler, 1978; Stone & Neale, 1984; Tobin, Holroyd, Reynolds, & Wigal, 1989).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대처 척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일부 척도는 이론적 배경이 확실하지 않다. 예컨대, Rhode, Lewinsohn, Tilson, 및 Seeley(1990)는 이론적 배경이 서로 다른 대처 척도들에서 몇개의 문항들을 단순히 취사 선택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자기-통제, 비효과적 도피 및 위로 추구 등으로 구성된 척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 배경없이 개발된 척도는 척도를 사용한 후속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제한을 갖게 한다(Cook & Campbell, 1979). 즉,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립없이 구성된 척도는 구성 타당도에 있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둘째, 지금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이론이 대처에 관하여 매우 단순한 접근을 하고 있다. 예컨대, 대처의 기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분은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이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런데, 이와 같은 개괄적인 구분은 대처와 관련된 기제를 이해하는 데 큰 공헌을 하지 못한다. 실제로, Folkman과 Lazarus(1980)에 의하면, 그들이 분석한 1332 가지 사건 가운데 약 98%의 상황에서 이 두가지 형태의 대처가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구분법은 효용 가치가 적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Folkman & Lazarus, 1980), 따라서 보다 세분화되고 타당한 구분법이 요청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세째, 부분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단순화와 관련이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대처 척도가 매우 제한된 범위의 대처 방식만을 다루고 있다. 예컨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Lazarus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Ways of Coping의 경우 8

개의 대처 요인이 구분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일부 예외적인 대처 척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머지 대처 척도에서도 10 가지 이내의 매우 제한적인 대처 방식만을 다루고 있다(Amirkhan, 1990; Disel-Lewis, 1988; Endler & Parker, 1990; Folkman & Lazarus, 1988; Hobfoll, Dunahoo, Ben-Porath, & Monnier, 1994; Stone & Neale, 1984; Tobin, Holroyd, Reynolds, & Wigal, 1989).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다차원적 대처 척도에서조차도 겨우 3가지 대처 방식(과제-중심적, 정서-중심적, 도피-중심적)만을 측정하고 있을 뿐이다(Endler & Parker, 1990). 결과적으로 이러한 단순한 대처 척도는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대처 기제에 대한 이해와 이 방법의 축적된 지식 체계를 어렵게 한다.

한편,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Carver, Scheier 및 Weintraub(1989)은 Lazarus 이론에서 강조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를 보다 세분화시켜서 13 가지의 대처 방식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아울러, McCrae(1984)는 Folkman과 Lazarus(1980)가 개발한 Ways of Coping 질문지에 포함된 68 문항에 덧붙여서 새롭게 50 문항을 추가한 후, 요인 분석과 '합리적 고려'에 의하여 28 가지의 대처 방식으로 구성된 대처 척도를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Frydenberg(1994)는 호주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18 가지 대처 방식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척도들은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세분화되고 다차원적인 대처 척도라는 점에서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척도들 역시 부분적인 제한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Carver, Scheier 및 Weintraub(1989)가 개발한 척도의 경우 바탕이 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이 확실하지 않다. 즉, 척도의 이론적 배경이 그들이 대부분의 다른 연구에서 기초로 삼고 있는 제어 이론(control theory)인지 아니면 Lazarus 이론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개발된 척도의 전체 13 가지 대처 방식 가운데 5 가지 하위 척도는 문제-중심적 대처를 측정하고 있고, 또 다른 5 가지 하위 척도는 정서-중심적 대처를 다루고 있으므로 제어 이론 보다는 Lazarus의 이론의 확대로 해석된다. 그런데, Lazarus 이론의 제한점은 이미 앞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다. McCrae의 척도는 비록 다양한 대처 방식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론적 배경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28 가지 척도 가운데 값이 .60 이하로 나타난 척도가 9개이고, 1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5 가지로 나타남으로써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끝으로, Frydenberg(1994)의 척도는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까닭에 대학생 이상의 성인층에게 사용하는데 제한적이다.

다차원적 대처 척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이론적 배경은 대처 자원, 대처 기능, 대처 양식 및 대처 방식을 포괄하는 3 차원적 피라미드 모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그림 1; 전경구, 1992 참조). 그림 1에서 보듯이, 수직의 축은 대처 자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번째 축은 대처 기능을, 그리고 나머지 축은 대처 양식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 따르면, 대처 자원은 크게 개인적 대처와 대리적 대처로 구분되며, 대리적 대처 자원은 다시 사회적 대처와 종교적 대처로 나누인다. 대처 기능은 제어 시스템의 기본적 구성 요소의 기능과 관련해서 동기기, 탐지기, 효과기 및 통제기의 제어 기능을 증대시키는 기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제어 기능의 증대는 통제의 개념과 연관시켜 보면 문제 해결적 통제(효과기), 정보적 통제(탐지기), 동기적 통제(동기기) 및 의사 결정적 통제(통제기)의 증대로 수렴된다. 대처 양식은 대처가 표현되는 양식으로서 행동적, 인지적 및 정서적으로 구분된다.

한편, 대처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대처 자원, 대처 기능 및 대처 양식의 조합에 의하여 구성된다.

예컨대, 적극적 대처(그림 1에서 아래의 까만 부분으로 표시된 대처 방식)는 대처 자원으로는 개인적 대처 자원에 속하며, 대처 기능으로는 문제 해결적 통제에 초점이 놓여 있는 효과기의 기능을 하며, 대처 양식으로는 주로 행동적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정보적 지원 추구는 사회적 대처 자원에서의 탐지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 때 사회적 대처와 종교적 대처에서는 대처 양식의 구분이 없게 된다. 다차원적 대처 모형은 전경구(1992)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었으므로 이곳에서는 전경구(1992)의 모형에 비하여 보완되거나 세련화된 측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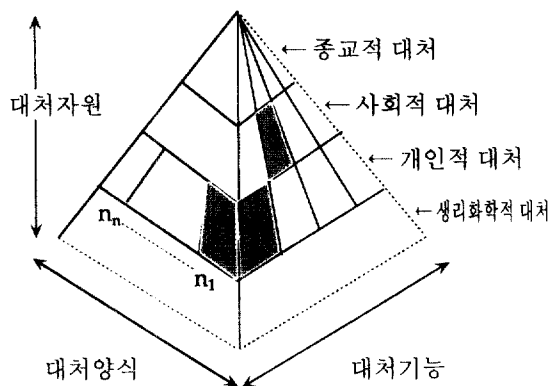


그림 1. 대처의 3차원적 모형(대처자원, 대처기능, 대처양식 및 대처방식)

그림 1에서 제시된 모형은 전경구(1992)에서 제시된 모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새로운 모형에서는 인간의 전인적인 측면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생리화학적 수준을 추가로 가정하고 있다(전경구, 김교현, 제출중 참조). 이렇게 생리화학적 수준을 포함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리화학적 수준에서의 대처는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기는 하지만, 생리화학적 대처와 그 보다 상위의 대처 간에는 상호 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보다 중요한 차이로는, 전경구(1992)에서는 제어시스템의 4가지 기본 구성 요소인 동기기, 탐지기, 효과기 및 통제기가 대처 기능과 관련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제어시스템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해보면(전경구, 1992에서 그림 2 참조), 4가지 기능 가운데 동기기, 탐지기 및 효과기와 관련된 기능은 명확한 반면에, 통제기와 관련된 대처 기능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림 1에서는 기능이 보다 명확하게 가정되고 있는 효과기, 탐지기, 동기기를 중심으로 모델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을 위하여 효과기, 탐지기, 동기기는 실선으로 표시된 반면에 통제기는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끝으로, 이전 모델에 비하여 일부 대처 방식이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모델에서 가정하는 대처 방식들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대처 방식의 기술은 편의상 대처 자원과 관련해서 개인적 차원을 먼저 기술하고, 이어서 사회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을 기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처 기능과 관련해서는 동기기, 탐지기, 효과기, 그리고 통제기의 순서로 기술하고자 하며, 대처 양식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행동적,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양식의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동기기와 관련된 대처 기제는 자신의 바람직한 상태와 관련된 동기적 통제(motivational control)로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때 바람직한 상태와 관련해서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지금까지 유지하던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행동적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고집), 또는 인지적 측면에서는 자신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긍정적 비교). 또한 정서적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정서적 혼란을 일단 가라 앉히려는 노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정서적 진정). 두번째 방향은 바람직한 상태를 실제 상태에 맞추어으로써 두 상태 간의 조화를 도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개인내적 갈등과 관련해서는 우선 순위 체계에서의 바람직한 성과를 조정하거나, 자신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던 가치를 평가 절하함에 의하여 조화 상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우선순위 조정/평가 절하). 또한 개인간에서 발생하는 부조화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바람직한 상태를 상대방의 바람직한 상태에 맞추거나(동화), 보다 극단적으로는 실제 상태에 맞추어서 자신의 바람직한 상태를 포기함으로써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체념).

탐제기와 관련된 대처는 환경으로부터 입수되는 정보의 통제와 관련이 있으며, 정보적 통제(informational control)로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때 정보적 통제도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입수되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부적이므로 가능한 면에서 이러한 부적 정보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 입수되는 부적인 정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일에 주의를 기울이거나(주의 전환), 부적인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잊으려고 노력하거나(적극적 망각), 극단적인 경우에는 환경에서 입수되는 정보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부적 정보를 통제할 것이다(부인). 하지만 이와같은 인지적인 노력이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때로는 행동적으로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부적 정보를 차단하고자 시도하게 될 것이다(약물 사용). 두번째 방향으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정보를 얻거나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예컨대, 문제 상황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살펴 보거나(긍정적 해석), 문제 상황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정보추구).

효과기의 일차적 기능은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으므로 문제해결적 통제(problem-solving control)가 주 기능이 된다. 문제 해결적 통제의 방향 역시 두 가지로 대분된다. 예컨대,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적극적 대처). 반면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문제 상황으로 부터 가능하면 멀리하게 될 것이다(소극적 철수). 한편, 인지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계획적 문제 해결). 끝으로 정서적 측면에서는 개인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 상태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정서 표출).

통제기는 동기기, 탐지기, 및 효과기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수렴해서 정보 간의 비교와 효율적인 결정을 관장한다. 특히 비교 과정은 효율적인 결정 과정을 위한 기초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통제기의 핵심적 기능은 의사 결정적 통제(decisional control)로서 수렴된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거나(자제), 차후에 같은 실수를 하지않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자기-비판).

사회적 대처 자원을 살펴 보면, 자신의 안녕이나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거나(정서적 지원 추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추구하거나(정보적 지원 추구), 다른 사람의 지원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문제해결적 지원 추구).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판단과 결정에 관한 타인의 지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의사 결정적 지원 추구).

끝으로 종교적 대처 자원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믿는 신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대처하려고 시도하게 될 것이다(종교적 추구). 그런데, 종교적 추구에서는 하나의 대처 방식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대처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향이 있게 된다. 예컨대, 개인은 종교를 통하여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고(동기기),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추구하고(탐지기),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효과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기를 추구하고(통제

기).

방법론적 문제

척도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신뢰도와 타당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한 분석에서 내적 일치도와 요인 분석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내적 일치도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본 척도가 현재 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한 회 시행을 통하여 신뢰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타당도 분석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렴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대처 척도의 경우 단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대신에 다양한 대처 방식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대처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구성 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Cohen & Syme, 1985). 즉, 대처의 핵심적 구성 개념에 의하면 대처를 사용함에 의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준거 변인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어떤 대처 방식이 감소시키면 이러한 대처 방식의 구성 타당도가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대처의 효과성은 개인의 기대나 사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의 효과를 감소하는 대신에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완충 효과에 의해서만 대처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서 새로 개발되는 대처 척도의 공준 타당도를 위하여 비교가 되는 기준적인 대처 척도가 국내에서 개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로 요인 분석법을 사용하여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개발된 대처 척도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대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척도는 앞에서 지적된 대처 척도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 제어 이론이라는 확고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고, (2) 대처 기제와 관련된 대처 자원, 대처 기능, 대처 양식, 및 대처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정립에 근거하여, (3) 보다 세분화되고 다차원적인 대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계의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의하여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대처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1²⁾

방 법

참여자(대구(33 명), 목포(68 명), 경주(36 명), 및 대전(93 명)에 거주하는 총 23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질문지 실시는 집단으로 시행하였으며, 실시 기간은 1992년 7월과 8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대처 척도의 예비 문항은 앞에서 소개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국내와 국외의 자료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대처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와 국외의 척도들(김정희, 1987; Billings & Moos, 1981;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Folkman & Lazarus, 1988; McCrae, 1984; Pearlin & Schooler, 1978; Stone & Neale, 1984)을 참조한

후, 본 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대처 방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택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Carver, Scheier, 및 Weintraub(1989)의 모형이 본 모델과 유사하므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둘째, 대구 지역의 대학생과 일반인에게 실시한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개방식 질문지를 토대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셋째, 대처 방식 가운데 정서 표출 문항은 전경구(1991)를 참고로 하여 추가하였다. 그 결과, 예비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모두 122 문항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참여자는 각 문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대처 방식에 대하여 그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0), 조금 그렇다(1), 상당히 그렇다(2), 매우 그렇다(3)의 4 가지 반응 가운데 하나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준거 척도는 간이 정신진단 검사(SCL-90-R)와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이었다. 이 가운데 간이 정신진단 검사는 전체 척도 가운데 2 가지 하위 척도--우울과 불안--만을 사용하였다. 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전경구, 이민규, 1992).

결 과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자 36%와 여자 64%로 나타났다. 연령의 평균은 32.3 세(범위, 18 세-61 세)로서 20 대(47.3%)와 30 대(29.1%)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참여자의 교육 수준은 대졸이 53%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고졸(29%)과 전문대졸(11.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끝으로, 종교별로는 기독교(30.9%), 불교(23.2%), 그리고 카톨릭(13.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지면 계약상, 분석결과를 압축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목사항은 첫번째 필자의 아래 주소로 연락바람. 참고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 1과 연구 2는 부분적으로 전경구,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김교현(1993)에서 발표된 바 있음.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척도에 포함되는 의미있는 대처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예, α 수준)을 적용함에 의하여, 전경구와 그의 동료들(1993)의 보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되고 있음. 주소: 대구시 남구 대명동 2288 대구대학교 심리치료학과.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 보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에 의한 타당도를 먼저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처 척도는 선형적 이론에 기초하여 척도 문항들을 선택하고 구성하였기 때문이었다. 환언하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앞에서 소개한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포함시킨 예비 척도 문항들이 과연 실증적으로 의미있는 요인 구조로 나타나는 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고 Varimax 법을 사용하여 축회전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 모델과 합치되게 나타난 대처 방식은 남겨두고, 반면에 이론적 모델과 달리 다양한 요인으로 분산되어서 나타난 대처 방식은 제거하였다. 이 밖에도 scree 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면서 요인 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론과 합치되면서 고유가가 1 이상으로서 독립적인 요인 구조로 나타난 요인이 10개 이었고, 10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변량이 68.7%이었다.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각 대처 방식 별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종교적 추구($\alpha=.93$, 4문항), 긍정적 비교($\alpha=.82$, 4문항), 사회적 지원 추구($\alpha=.81$, 4문항), 자기 비판($\alpha=.81$, 4문항), 적극적 대처($\alpha=.74$, 4문항), 적극적 망각($\alpha=.73$, 3문항), 정서 표출($\alpha=.73$, 4문항), 약물 사용($\alpha=.71$, 3문항), 고집($\alpha=.71$, 3문항), 및 소극적 철수($\alpha=.57$, 3문항). 이러한 결과는 비록 작은 문항 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처 방식 척도에서 .60 이상을 나타냄으로써 최소한 연구를 위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나타냈다(Nunnally, 1978). 본 연구에서는, 비록 소극적 철수에 포 함된 문항수를 고려하면 다소 보수적인 기준이 되겠으나, .60 이하로 나타난 소극적 철수 척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9 가지 대처 방식(총 36 문항)을 측정하는 대처 척도를 구성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선형적 이론과 국내와 국외에서 개발된 대처 척도에 기초하여 다차원적인 대처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대처, 사회적 대처, 및 종교적 대처를 포함하는 모두 9 가지 대처 방식을 측정하는 36 문항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척도를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의미있는 대처 방식으로 나타난 결과를 서론에서 언급한 이론적 모델과 비교해 보면,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대처 방식의 수에 비하여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대처 방식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양호한 척도의 개발을 위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표집을 포함시키고 각 전집의 대표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표집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이 모두 성인 집단으로 국한된 점을 감안하면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예, 대학생 집단)을 사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연 구 2

본 연구는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세련된 척도를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에서 성인 집단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처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4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생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은양(92 명), 대전(60 명), 대구(93 명), 및 전주(100 명)에 위치하는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 총 345 명이었다. 조사는 강의 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 기간은 1992년 11월과 12월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처 척도 문항은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보완하였으며, 총 90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역시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4점 척도로서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준거 척도로는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판 간이 정신진단 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2가지 하위 척도(우울, 불안)와 한국판 CES-D(전경구, 이민규, 1992)를 사용하였다.

결 과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한 결과, 남자 39%와 여자 61%로 나타났다. 연령의 평균은 21.1세(범위, 18 세-34 세)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참여자의 43%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참여자의 종파별 구성은 기독교(27%), 불교(11%), 그리고 카톨릭(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1과 동일하게 주성분 분석법과 varimax법을 사용하여 일련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험적 이론과 합치되고 독립적인 요인 구조로 나타난 요인이 9가지 대처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설명되는 변량이 68.7%로 나타났다. 한편,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와 정서적 지원 추구로 구분하여 문항을 포함시켰으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대처 방식--사회적 지원 추구--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번에는 요인의 수를 10 개로 지정해서 다시 한번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로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와 정서적 지원 추구가 독립된 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은 요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론적 모델과 이러

한 실증적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요인은 10 개로 해석되었으며, 이렇게 10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변량이 71.1%로 나타났다.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대처 방식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대처 방식에서 .60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비교적 적은 문항 수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대처 방식의 내적 일치도는 다음과 같다: 문제해결적 지원 추구($\alpha=.88$, 4 문항), 정서적 지원 추구($\alpha=.80$, 4 문항), 종교적 추구($\alpha=.96$, 4 문항), 긍정적 해석($\alpha=.84$, 4 문항), 정서 표출($\alpha=.76$, 4 문항), 자기 비판($\alpha=.84$, 4 문항), 소극적 철수($\alpha=.75$, 4 문항), 긍정적 비교($\alpha=.78$, 4 문항), 고집($\alpha=.64$, 3 문항), 동화($\alpha=.74$, 4 문항).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0 가지 대처 방식을 측정하는 총 39 문항을 포함하는 척도를 구성할 수 있었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대처 방식과 해당 문항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의 후속적인 연구로서 보다 세련된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0가지 대처 방식에 걸친 모두 39문항이 의미있는 요인 구조와 내적일치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연구 1과 비교해 보면, 연구 1에 비하여 사회적 지원추구가 보다 세분화되고, 긍정적 해석, 소극적 철수, 및 동화가 추가되었다. 반면에 연구 1에서 의미있는 대처 방식으로 나타났던 적극적 대처, 적극적 망각, 및 약물 사용이 탈락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대처 방식 수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모형에 더욱 근접한 다차원적 대처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준거 변인으로서 모두 정신병리적 측면만을 다루었다. 하지만, 스트레스, 대처, 적응간의 관계성은 신체병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신병리와 함께 신체병리를 준거 변인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처

표 1. 이론에 기초한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요인 양상, 1단계(N=230) 및 2단계(N=345)

문	항	요인부하량	문	항	요인부하량
문제해결적 지원추구			자기 비판		
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82	나는 문제의 핵심이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한다		.79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81	나는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질책한다		.75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81	나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자책한다	(.66).	.75
나는 나와 비슷한 경험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물어본다		.71	나는 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을 탓한다	(.81).	.67
정서적 지원 추구			(나는 자신을 비판한다)		(.87)
나는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따뜻한 심리적 지원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73).	.68	(나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자신을 비판한다)		(.72)
나는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65	소극적 철수		
나는 나를 따뜻하게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78	나는 문제상황으로 부터 철수한다		.74
나는 친구나 친구에게 고백함으로써 위로를 구한다		.62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감소시킨다		.69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사람을 찾는다		.55	나는 문제해결에 대한 더 이상의 노력을 중단한다		.66
(나는 걱정거리를 친구나 친척에게 고백한다)	(.80)		나는 문제상황을 피한다		.54
(나는 문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는다)	(.78)		긍정적 비교		
나는 문제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다	(.69)		나는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비교한다	(.66).	.79
종교적 추구			나는 나보다 못한 주위사람을 생각한다	(.85).	.70
나는 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의 지혜를 얻으려 한다	(.91).	.91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79).	.69
나는 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얻고자 노력한다	(.91).	.90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로한다	(.73).	.60
나는 신앙에 의존한다	(.90).	.85	고 집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하여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82).	.80	나는 문제해결과 관계없이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다	(.80).	.72
나는 평소보다 더욱 기도를 한다		.76	나는 문제가 되더라도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다	(.49).	.70
긍정적 해석			나는 아무 생각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		.60
나는 문제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한다		.82	(나는 문제상황에 관계없이 나대로 생활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		(.64)
나는 현재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78	동 화		
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봄으로써 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72	나는 내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방 입장을 따른다		.68
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71	나는 나 자신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67
정서 표출			나는 상대방의 결정에 묵묵히 따른다		.65
나는 화가 나면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77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 나 자신을 맡긴다		.51
나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그대로 표현한다		.69	(적극적 대처)		
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76).	.60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는다)		(.81)
나는 화가 나면 소리지른다		.51	(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		(.65)
나는 화가 날 경우, 화 난 감정을 발산한다	(.74)		(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		(.62)
나는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가능한 노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66)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면돌파를 시도한다)		(.47)
나는 나의 감정대로 행동한다	(.57)		(적극적 망각)		
			(나는 그 일에 대하여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80)
			(나는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64)
			(나는 가능하면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49)
			(약물 사용)		
			(나는 술을 마심으로써 문제를 잊으려고 노력한다)		(.79)
			(나는 술을 마신다)		(.79)
			(나는 담배를 피운다)		(.67)

* 1단계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대처문항과 해당 요인부하량은 괄호안에 표시되었음.

기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연구 3

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2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일부 대처 영역과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신뢰롭고 타당한 다차원적 대처 척도를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전국 5개 지역에 거주하는 800 명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시킴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꾀하였다.

방 법

본 연구의 참여자는 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생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172명), 대전(172명), 전주(166명), 강릉(134명), 대구(167명) 지역에 위치한 대학생 총 811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 기간은 1994년 6월과 7월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척도 문항은 연구 1과 연구 2에서 의미있게 나타난 문항에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모두 105문항으로 구성했다. 각 문항에 대한 평정은 역시 연구 1과 연구 2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준거 척도로는 정신적 병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불안(한국판 SCL-90-R, 간이 정신진단 검사,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을 사용하고 신체적 병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불안 척도는 연구 1과 연구 2와 동일하며, 두통 척도는 연구자가 개발중인 신체 증상 척도의 일부로서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일치도가 $\alpha=.89$ 로 나타났다.

결 과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한 결과, 성별로

는 남자 51%와 여자 49%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연령 평균은 21.8 세(연령 범위, 16 세-29 세)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32.9%), 2학년(22.9%), 3학년(20.2%), 4학년(23.3%)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의 35%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참여자의 종파별 구성은 기독교(10.0%), 불교(6.4%), 그리고 카톨릭(4.7%)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표집을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론과 합치되지 않은 대처 방식들을 단계적으로 제외시킨 결과, 이론과 합치되고 독립적인 요인구조로 나타난 요인이 16개로 나타났다. 이때 문제 해결적 지원추구와 정서적 지원추구가 동일한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론적 요인수를 17개로 지정한 후 다시 한번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와 유사한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이론적 배경에서 볼 때 문제 해결적 지원추구와 정서적 지원 추구가 구분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 2에서는 실증적으로도 독립된 요인 구조로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후 분석에서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하고 정서적 지원추구를 구분하여 분석하겠으며, 이러한 17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변량이 57.8%로 나타났다.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17개의 하위 척도별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대처 방식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 추구($\alpha=.86$, 4 문항),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alpha=.88$, 4 문항), 종교적 추구($\alpha=.94$, 5 문항), 정서 표출($\alpha=.83$, 5 문항), 동화 또는 양보($\alpha=.79$, 5 문항), 적극적 망각($\alpha=.78$, 5 문항), 정서적 진정($\alpha=.81$, 4 문항), 자기 비판($\alpha=.86$, 4 문항), 고집($\alpha=.81$, 5 문항), 긍정적 비교($\alpha=.80$, 5 문항), 긍정적 해석($\alpha=.83$, 4 문항), 적극적 대처($\alpha=.75$, 4 문항), 체념($\alpha=.85$, 3 문항), 자제($\alpha=.69$, 4 문항), 소극적 철수($\alpha=.70$, 3 문항), 주의 전환($\alpha=.48$, 3 문항), 약물 사용($\alpha=.58$, 3 문항). 본 연구에서도 내

표 2. 제이이론에 기초한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요인 양상, 3단계(N=811)

문	항	요인부하량	문	항	요인부하량
정서적 지원 추구			자기 비판		
나는 나를 따뜻하게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78		나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자책한다	.79	
나는 나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76		나는 문제의 핵심이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한다	.77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74		나는 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을 탓한다	.77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할 사람을 찾는다	.61		나는 나 스스로의 잘못을 채찍질한다	.70	
문제해결적 지원 추구			고 집		
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74		나는 문제상황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만 계속 몰두한다	.78	
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	.72		나는 문제해결과 관계없이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다	.71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능력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69		나는 아무 생각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	.68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68		나는 문제해결과 관계없이 평소와 하던 대로 한다	.58	
종교적 추구			나는 별 생각없이 하던 일만 계속 충실하게 한다	.53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하여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89		긍정적 비교		
나는 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 살아가야 할 올바른 판단을 얻고자 노력한다	.87		나는 나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비교한다	.73	
나는 신앙에 의존한다	.85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한다	.70	
나는 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의 의미를 얻으려 한다	.84		나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68	
나는 평소보다 더욱 기도를 한다	.73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53	
정서 표출			긍정적 해석		
나는 화가 나면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79		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봄으로써 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72	
나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74		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69	
나는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72		나는 문제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한다	.68	
나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72		나는 문제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한다	.59	
나는 화가 나면 소리지른다	.53		나는 현재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동화(양보)			적극적 대처		
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68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는다	.73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	.67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70	
나는 내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방 입장을 따른다	.66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67	
나는 상대방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65		나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57	
나는 상대방에게 양보한다	.62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	.77	
적극적 망각			체 넘		
나는 문제상황을 가능하면 잊으려고 노력한다	.75		나는 '모든 것이 다 운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73	
나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잊자'고 다짐한다	.66		나는 '이것도 내 팔자려니'하고 받아들인다	.73	
나는 문제상황을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62		나는 문제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68	
나는 가능하면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59		나는 문제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64	
나는 문제상황을 될 수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52		자 제		
정서적 진정			나는 연젠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린다	.64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	.78		나는 적절한 시간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51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1		나는 기회를 엿보며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관망한다	.69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한다	.65		소극적 철수		
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53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그만둔다	.67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을 중단한다	.44	
			나는 문제상황을 피한다		

표 3. 전체 집단과 남녀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N=811)

	전 체		남 자		여 자	
	평 균	(평균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적극적 대처	6.76	2.16	7.04	2.22	6.47	2.06
소극적 철수	1.95	1.60	1.83	1.53	2.07	1.66
정서 표출	5.19	3.00	4.83	2.77	5.54	3.17
적극적 망각	6.55	2.87	6.22	2.71	6.89	2.99
자 제	4.83	2.12	4.92	2.14	4.75	2.09
고 집	4.74	2.79	5.16	2.69	4.31	2.83
긍정적 해석	6.89	2.41	7.13	2.28	6.65	2.52
긍정적 비교	5.65	2.76	5.80	2.70	5.49	2.82
동화(양보)	5.55	2.60	5.68	2.51	5.40	2.67
체 념	2.26	1.98	2.34	1.94	2.17	2.02
자기 비판	6.00	2.54	5.99	2.36	6.00	2.71
정서적 진정	7.95	2.26	7.91	2.21	7.99	2.31
문제해결적 지원추구	5.22	2.72	5.05	2.39	5.37	3.01
정서적 지원추구	6.30	2.82	6.13	2.62	6.47	2.99
종교적 추구	3.72	4.39	3.14	3.98	4.35	4.73

적 일치도가 .60 이하인 척도를 제외시키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요인 구조와 내적일치도에서 만족스럽게 나타난 대처 방식이 15가지 영역에 걸친 총 64 문항이었다. 이때 구체적인 대처 방식과 해당 문항이 표 2에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전체 집단과 남녀 집단에서의 척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 분석

각 대처 방식 간의 상관을 산출한 결과,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서 보는대로 각 대처 방식 간에 .30 이상으로 나타난 상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대처가 긍정적 해석($r=.39$), 및 정서적 진정($r=.35$)과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난 반면에, 소극적 철수($r=-.30$)와는 유의한 역상관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극적 철수는 적극적 망각($r=.47$), 자제($r=.32$), 동화($r=.40$), 및 체념($r=.45$)과 유의한 정적 연관성을 나타냈다. 세째,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는

정서적 지원 추구($r=.73$)와 높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자제가 고집($r=.35$), 동화($r=.35$), 및 체념($r=.35$)과 유의하게 나타나고, 아울러 적극적 망각과 체념($r=.32$), 긍정적 해석과 정서적 진정($r=.56$), 그리고 동화와 수용($r=.40$)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 방식이 핵심적으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철수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Roth & Cohen, 1986). 한편,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하고 정서적 지원 추구 간에 높은 상관은 사회적 지원 추구의 하위 척도라는 점에서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으며, 나머지 대처 방식 간의 높은 상관은 앞에서 살펴 본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철수를 축으로 하는 대처 방식 간의 연관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처 방식과 준거 변인 간의 상관을 산출한 결과, 적극적 대처가 불안과 두통 모두에 대하여 역상관으로 나타났다(불안, $r=-.15$; $p < .001$;

표 4. 15가지 대처방식의 상관 행렬

척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적극적 대처														
2. 소극적 철수	-.30													
3. 적극적 망각	-.18	.48												
4. 정서 표출	.07	.12	.07											
5. 자 제	.01	.32	.28	-.07										
6. 고 집	.16	.17	.18	-.05	.35									
7. 긍정적 해석	.39	-.11	.14	-.17	.21	.28								
8. 긍정적 비교	.11	.23	.26	.07	.24	.20	.28							
9. 동 화	-.07	.40	.30	-.14	.35	.24	.21	.27						
10. 체 념	-.15	.45	.32	.06	.34	.16	.05	.23	.40					
11. 자 기 비 판	.06	.14	.16	-.03	.16	.05	.14	.18	.25	.14				
12. 정서적 진정	.36	-.04	.29	-.07	.23	.18	.56	.22	.16	.04	.24			
13. 해결적 지원추구	.17	.09	.11	.25	.13	.04	.10	.23	.16	.07	.11	.14		
14. 정서적 지원추구	.13	.14	.15	.21	.17	.03	.10	.27	.20	.09	.16	.23	.73	
15. 종교적 추구	.20	-.01	.03	-.03	.09	.05	.19	.13	.10	-.10	.07	.15	.17	.15

두통, $r=-.14$; $p < .001$). 반면에 소극적 철수(불안, $r=.26$; $p < .001$; 두통, $r=.16$; $p < .001$), 정서 표출(불안, $r=.10$; $p < .01$; 두통, $r=.12$; $p < .001$), 적극적 망각(불안, $r=.15$; $p < .001$; 두통, $r=.14$; $p < .001$), 자기 비판(불안, $r=.32$; $p < .001$; 두통, $r=.18$; $p < .001$),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불안, $r=.19$; $p < .001$; 두통, $r=.13$; $p < .001$) 및 정서적 지원 추구(불안, $r=.23$; $p < .001$; 두통, $r=.15$; $p < .001$)는 유의하게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 해석이 불안에 대해서 유의한 역상관을 나타낸 반면에 ($r = -.13$; $p < .001$), 자제($r=.16$; $p < .001$), 동화($r=.17$; $p < .001$) 및 체념($r=.18$; $p < .001$)은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 해석이 효과적인 대처 방식임에 비하여 소극적 철수, 정서 표출, 적극적 망각, 자기 비판,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정서적 지원 추구, 자제, 동화 및 체념이 비효과적인 대처 방식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대처 척도의 성별 분석

일반적으로는 가능한대로 남녀 집단 간에 동등하거나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반응이 나타난 문항을 선별하게 된다(Kline, 1993).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다차원적 척도는 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분화된 정보 가운데는 성별 비교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그러한 효용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대처 방식과 관련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하여 자주 사용하는 대처 방식으로는 적극적 대처, $t=3.80$, $p < .001$ 와 고집, $t=4.39$, $p < .001$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하여 자주 사용하는 대처 방식으로는 소극적 철수, $t=-2.07$, $p < .05$, 적극적 망각, $t=-3.34$, $p < .001$, 정서 표출, $t=-3.40$, $p < .001$, 긍정적 해석, $t=-3.08$, $p < .01$ 및 종교적 추구, $t=-3.86$, $p < .001$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제, 긍정적 비교, 동화, 체념, 자

기 비판, 문제해결적 지원 추구 및 정서적 지원 추구에서는 성별 간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성별에 따른 대처 방식의 사용 빈도와 선호도가 다름을 암시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보다 포괄적이고 세련된 대처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5 가지의 대처 방식을 측정하는 총 64 문항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대처 척도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1과 연구 2에 비하여 각각 6가지 대처 방식(29 문항)과 5 가지 대처 방식(26 문항)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에서 가정했던 대처 방식에 상당히 접근함으로써 이론에 기초한 실증적 결과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 해석이 효과적인 대처 방식임을 암시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적 철수, 정서 표출, 적극적 망각, 자기 비판,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 정서적 지원 추구, 자제, 동화, 체념이 비효과적인 대처 방식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면 제약상 앞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연구 1(적극적 대처, 적극적 망각, 정서 표출)과 연구 2(적극적 대처, 긍정적 해석, 소극적 철수, 자기 비판)에서 나타난 결과와 방향이 일치하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 지원 추구가 연구 1에서는 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암시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하고 정서적 지원 추구가 모두 비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암시되어서 상반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본 연구와 달리 연구 1에서는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하고 정서적 지원 추구를 구별하지 않은 데 기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회적 지원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불안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Lazarus, 1993).

본 척도에 포함된 대처 방식 간의 연관성을 살펴 보면,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철수가 핵심적인 대처 방식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기체는 투쟁하거나 도피하게 된다는 가정(Cannon, 1914)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현상학, 및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개관 논문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 대처 양식으로서 접근과 도피를 주장하고 있는 Roth와 Cohen(1986)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이러한 핵심적인 대처 방식이 제어 시스템에서 가정하고 있는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영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효과기에서 적극적 대처가 작동하는 경우에 탐지기에서는 긍정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고, 동기기에서는 정서적 진정을 하는 경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제에서 효과기에서의 소극적 철수는 탐지기에서 적극적 망각을, 동기기에서는 동화나 체념을, 그리고 통제기에서는 자제를 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다른 연구에서도 남자들이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반면에 여자들이 소극적 철수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다(Endler & Parker, 1990; Stone & Neale, 1984). 한편, 선행 연구에서는(Endler & Parker, 1990; Hobfoll, Dunahoo, Ben-Porath, & Monnier, 1994), 여자들이 사회적 지원 추구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사회적 지원 추구의 효과가 불안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부분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외된 일부 영역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주의 전환

의 경우 내적일치도가 .60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주의 전환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대처 방식의 하나 (McCaul & Haugtvedt, 1982)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심리측정적 관점에서 제외시키기 보다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대처 척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주의 전환을 생산적 주의전환(예, 나는 음악 감상을 한다, 나는 일부러 노래를 흥얼거린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한다, 나는 운동을 한다)과 탐닉적 주의전환(예, 나는 영화나 T.V.를 본다, 나는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 나는 실컷 잔다, 나는 쇼핑을 가서 물건을 충동적으로 산다)으로 각각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생산적 주의 전환은 적극적 대처와($r = .24, p < .001$) 그리고 탐닉적 주의 전환은 소극적 철수($r = .32, p < .001$)와 각각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본 척도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추후에 보다 적절한 주의 전환 척도 방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스트레스와 적응 간의 관계성에 대한 보다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적 이론 모형과 국내와 국외의 대표적인 대처 척도를 참고하여 세분화되고 다차원적인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1에서는 230 명의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345 명의 대학생 집단, 그리고 연구 3에서는 811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9 가지 대처 방식(36 문항), 그리고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각각 10 가지 대처 방식(39 문항)과 15 가지 대처 방식(64 문항)이 만족스런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적 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대처 방식에 점차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의미있

게 나타난 대처 방식을 다른 대처 척도에서의 유사한 대처 방식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비교는 비록 다른 대처 척도에 포함된 문항이 본 척도의 문항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본 척도와 다른 척도 간의 공존 타당도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서적 지원 추구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문제 해결적 지원 추구(도구적 지원 추구,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종교적 추구(신앙에 의존,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신앙, McCrae, 1984/영적 지원 추구, Frydenberg, 1994), 정서 표출(정서 표현, McCrae, 1984/정서 분출,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적극적 망각 (McCrae, 1984), 자기 비판(자기-비난, McCrae, 1984; Frydenberg, 1994), 고집(McCrae, 1984), 긍정적 비교(Pearlin & Schooler, 1978/사회적 비교, McCrae, 1984), 긍정적 해석(긍정적 재해석,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긍정적 사고, McCrae, 1984/긍정적 초점, Frydenberg, 1994), 적극적 대처(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문제 해결에 초점, Frydenberg, 1994/직접적 행동, Stone & Neale, 1984), 체념(McCrae, 1984/수용,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자제 (McCrae, 1984/자제적 대처,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소극적 철수 (행동적 절연,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로 나타났다.

한편, 이론적 모델에서 가정되었으나, 신뢰도나 타당도에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포함되지 못한 대처 방식으로는 우선 순위 조정/평가 절하, 주의 전환, 부인, 약물 사용, 계획적 문제 해결 및 정보적 지원 추구이었다. 이 가운데 우선 순위 조정/평가 절하, 부인, 계획적 문제 해결, 및 정보적 지원 추구는 요인 분석에서 다른 요인과 중복되어서 나타남으로써 제외시켰다. 그리고 주의 전환과 약물 사용은 독립적인 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나 .60 이하의 내적 일치도를 보임으로써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증적 결과에 기초할 때, 앞

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예컨대, 부인의 경우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탐지기의 기능과 관련된 대처 방식 가운데 극단적 형태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인'을 대처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정신 분석적 이론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거나(Joffe & Naditch, 1977; Hackett & Cassem, 1974; Lazarus, 1981; Cohen, 1987에서 재인용), 극단적인 외상적 경험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Horowitz, 197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바처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처 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대처 척도에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다차원적 대처 척도에서 어떻게 '체념'이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이론적 모델에 의하면 부인과 체념은 모두 극단적인 대처 방식으로서 가정되고 있으나, 실증적인 결과에서는 부인은 대처 척도에서 제외되고 체념은 대처 척도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체념이 대표적인 대처 방식으로 포함된 이유의 하나로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의 하나인 '한'(최상진, 1991)과 체념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화권에는 환경을 자신에게 맞추으로써 대처하려는 1차적 통제가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신을 환경에 맞추으로써 대처하려는 2차적 통제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Weisz, Rothbaum, & Blackburn, 1984). 따라서 한국에서는 자신을 환경에 맞추는 경향의 하나로서 체념적 대처가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척도에서 의미있는 대처 방식의 하나로 나타난 동화의 경우에도 서양 문화권 보다는 한국 문화권에서 특징적인 대처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과 그에 대한 타당성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밝

혀져야 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세분화되고 다차원적인 대처 척도의 개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선행 연구와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3 개의 연구 가운데 2 번 이상 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암시된 척도로는 적극적 대처, 고집, 및 긍정적 해석이었다. 한편, 2 번 이상 비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암시된 대처 척도로는 소극적 철수, 적극적 망각, 정서 표출, 및 자기 비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와 관련된 국내와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와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적극적 대처(김교현, 전경구, 1992; 한덕웅, 전경구, 탁진국, 이창호, 이근효, 1993;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Lazarus & Folkman, 1984)와 긍정적 해석(김교현, 전경구, 1992; 문신자, 1994; Carver, Pozo, Harris, Noriega, Scheier, Robinson, Ketcham, Moffat, & Clark, 1993)은 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소극적 철수(Aldwin & Revenson, 1987; Billings & Moos, 1984;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Lazarus & Folkman, 1984), 자기 비판(김교현, 전경구, 1992), 및 정서 표출(김교현, 전경구, 1992;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은 비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집과 적극적 망각은 선행 연구가 충분치 않아서 비교할 수가 없다.

위에서 살펴본 효과적인 대처 방식과 비효과적인 대처 방식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Lazarus(& Folkman, 1984)의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의 개념에 기초할 때, 일반적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가 효과적이고 정서 중심적 대처가 비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Billings & Moos, 1984; 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적극적 대처는 문제 중심적 대처로 간주할 수 있고, 적극적 망각이나 정서 표출은 정서-중심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암시되고 있는 긍정적 해석을 문제-중심적 대처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맥락에서 비효과적인 대처로 나타나고 있는 소극적 철수나 자기 비판을 정서-중심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Lazarus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 중심 대 정서 중심 대처의 구분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의 가능한 해석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철수를 핵심적 축으로 하는 접근법이다(Roth & Cohen, 1986).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 역시 제한된 해석만을 제공할 뿐이다. 즉, 이 접근법에서는 적극적 대처와 긍정적 해석 간의 관계성이나, 소극적 철수와 정서 표출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제어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상태(desired state)를 유지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을수록 비효과적인 대처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환언하면, 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서의 적극적 대처란 자신의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하기 위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긍정적 해석은 자신의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비효과적인 대처 방식으로서의 소극적 철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력을 중단하거나 피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적 망각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 없애려는 노력을 의미할 수 있으며, 정서 표출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표현이고, 끝으로 자기 비판이란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에 대한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어느 관점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대처 척도는 다음과 같은 제

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3 개의 독립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험적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대처 방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과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처 척도를 사용하여 또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타당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분석을 내적 일치도와 요인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여건이 허락되면 다른 대처 척도와의 준거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대처의 효과성은 준거 변인과의 상관 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 또는 분석에서는 스트레스-대처-적용이라는 맥락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처 기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적극적 대처가 효과적이고 소극적 철수가 비효과적이라는 분석 보다는 어떤 조건에서 적극적 대처가 효과적이고 또 어떤 조건에서 소극적 철수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철수의 효과성이 스트레스의 성질과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Lazarus & Folkman, 1984; Suls & Fletcher, 1985; Roth & Cohen, 1986).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차원적 대처 척도는 스트레스와 대처 그리고 적용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측정 도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다 세분화되고 다차원적인 대처 척도를 사용함에 의하여 개인간 비교, 집단간 비교, 및 문화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본 척도를 사용함에 의하여 적극적 대처 또는 소극적 철수를 주로 사용하는 개인차를 밝혀낼 수 있으며, 남녀별로 주로 사용하는 대처 방식을 비교할 수 있으며, 아울러 특정한 대처 방식(예, 양보, 체념)의 문화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사용은 보다 세분화된 정보의 제공과 활용 범위의 확장을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의 지식 축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현, 전경구(199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 경험 분석. 한국 심리학회 '92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413-423.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 정신 진단 검사. 서울: 중앙 적성 출판사.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 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 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 논문.
- 문신자(1994). 특수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의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전경구(1991). 분노 표현 양식과 신체 병리와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 '91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9-15.
- 전경구(1992). 대처 기제 이해를 위한 포괄적 시론: 제어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
- 전경구, 김교현(준비중).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통합적 모델: 제어이론적 조망.
- 전경구, 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2.
- 최상진(1991). '恨'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91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339-350.
- 한덕웅, 전경구, 박진국, 이창호, 이건효(1992). 대학생들의 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불안, 우울 및 신체형 장애를 중심으로. '92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초록. 447-462.
- Aldwin, C.M., & Revenson, T.A. (1987).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337-348.
- Amirkhan, J.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66-1074.
- Billings, A.G., & Moos, R.H.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in attenuating the stress of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157.
- Billings, A.G., & Moos, R.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Cannon, W.B. (1914). The interrelations of emotions as suggested by recent physiological researcher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5, 256-282.
- Carver, C.S., Pozo, C., Harris, S.D., Noriega, V., Scheier, M.F., Robinson, D.S., Ketcham, A.S., Moffat, F.L., Clark, K.C. (1993). How coping mediates the effect of optimism on distress: A study of woman with early stage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75-390.
- Carver, C.S., & M.F., Weintraub, J.K.(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ohen, F.(1987). Measurement of coping. In S. V. Kasl & C.L. Cooper(Eds.), *Stress and health: Issues in reserach method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Cook, T.D., & Campbell, D.T.(1979). *Quasi-experimentation: Design and analysis issues for field settings*. Chicago, IL: Houghton-Mifflin.
- Dise-Lewis, J.E.(1988). The life events and coping inventory: An assessment of stress in

- children. *Psychosomatic Medicine*, 50, 484-499.
- Endler, N.S., & Parker, J.D.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Folkman, S., & Lazarus, R.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Folkman, S., & Lazarus, R.S. (1988). *Manual for th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Frydenberg, E. (1994, July). Coping and its correlates: What the adolescent coping scale tells us. Paper presented at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pplied Psychology, Spain Madrid.
- Hobfoll, S.E., Dunahoo C.L., Ben-Porath. Y., & Monnier J.(1994). Gender and coping: The dual axis model of cop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49-82.
- Horowitz. M.(1979). Psychological response to serious life events. In V. Hamilton & D.M. Warburton(Eds.), *Human stress and cognition: i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Chichester, England,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Kline, P. (1993). *The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London: Routledge.
- Lazarus, R.S.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Eisdorfer, D. Cohen, A. Kleinman, & P. Maxim (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ology*. New York: Spectrum Publications.
- Lazarus, R.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 234-247.
- L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McGraw-Hill.
- McCaul, K.D., & Haugtvedt, C.(1982). Attention, distraction, and cold-pressor p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54-162.
- McCrae, R.R. (1984).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responses: Loss, threat, and challe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19-928.
- Nunnally, J.C.(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Pearlin, L.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al*, 19, 2-21.
- Rohde, P., Lewinsohn, P.M., Tilson, M., & Seeley, J.R.(1990). Dimensionality of coping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499-511.
- Roth, S., & Cohen, L.J.(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7, 813-819.
- Stone, A.A., & Neale, J.M.(1984). New measure of daily coping: Development and preliminary res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92-906.
- Suls, J., & Fletcher, B.(1985). Their relative efficacy of avoidant and non-avoidant coping strategies: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4, 249-288.
- Tobin, D.L., Holroyd, K.A., Reynolds, R.V., & Wigal, J.K.(1989). The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343-361.
- Weisz, J.R., Rothbaum, F.M., & Blackburn, T.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The psychology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 955-975.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Kyum Koo Chon Kyo Heon Kim Shin Woong Cho Myong Rae Rho Chung Rak Sohn

Taegu University	ChungNam University	National Mokpo Hospital	SunChonHyang University	ChonBook University
---------------------	------------------------	----------------------------	----------------------------	------------------------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multidimensional coping scales, encompassing personal, social, and religious coping. For this purpose, three independent studies were conducted. The initial item pool was generated from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 a control theoretical model on coping, a variety of domestic and foreign coping scales, and an open questionnaire on stress and coping. In Study 1, participants were 230 adult population, and the item selection was made from 122 initial item pool into 36 items covering 9 coping styles. The examination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cale was utilized b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 alpha's. In study 2, the participants were 345 college students. Item selection was made from 90 items into 39 items for 10 coping styles. In study 3, employing another 811 college students as participants, the initial pool of 105 items were narrowed down into 15 coping styles consisting of 64 items. Eventually, the final version of a multidimensional coping scale is composed of personal, social, and religious coping resources: (Personal Coping Resources), active coping, passive withdrawal, emotional expression, active forgetting, perseverance, positive interpretation, positive comparison, accommodation, fatalism, self-criticism, emotional pacification; (Social Coping Resources), problem-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emotional social support seeking; (Religious Coping Resources), religious seeking. Finally, the present findings were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부록. 다차원적 대처 척도

아래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대처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당신께서 평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대처 방식을 0표로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0,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1, 상당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2, 그리고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3에 0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답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의 대처 방식은 상관하지 마시고, 당신의 일반적인 대처 방식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전혀 그렇지 않다.

2: 상당히 그렇다.

1: 조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전혀	조금	상당히	매우
1.(1)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는다	0	1	2	3
2.(4) 나는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0	1	2	3
3.(7) 나는 가능하면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쓴다	0	1	2	3
4.(12) 나는 적절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0	1	2	3
5.(13) 나는 별 생각없이 하던 일만 계속 충실하게 한다	0	1	2	3
6.(14) 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7.(15) 나는 나 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한다	0	1	2	3
8.(16) 나는 내 입장을 포기하고 상대방 입장을 따른다	0	1	2	3
9.(19) 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0	1	2	3
10.(21)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할 사람을 찾는다	0	1	2	3
11.(22) 나는 평소보다 더욱 기도를 한다	0	1	2	3
12.(23) 나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0	1	2	3
13.(25)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	0	1	2	3
14.(26) 나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0	1	2	3
15.(27) 나는 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린다	0	1	2	3
16.(28) 나는 문제 상황을 될 수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3
17.(34) 나는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다	0	1	2	3
18.(35) 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봄으로써 보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19.(36) 나는 나보다 못한 주위 사람을 생각한다	0	1	2	3
20.(37) 나는 상대방에게 양보한다	0	1	2	3
21.(40)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한다	0	1	2	3
22.(41) 나는 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을 탓한다	0	1	2	3
23.(43) 나는 신앙에 의존한다	0	1	2	3
24.(44)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간다	0	1	2	3
25.(47) 나는 화가 나면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발산한다	0	1	2	3
26.(48) 나는 문제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0	1	2	3
27.(49) 나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잊자'고 다짐한다	0	1	2	3
28.(50)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0	1	2	3

	전혀	조금	상당히	매우
29.(52)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을 중단한다	0	1	2	3
30.(54) 나는 문제 상황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만 계속 몰두한다	0	1	2	3
31.(55) 나는 문제 상황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한다	0	1	2	3
32.(56) 나는 나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비교한다	0	1	2	3
33.(57)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34.(58) 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0	1	2	3
35.(59) 나는 '모든 것이 다 운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0	1	2	3
36.(61)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0	1	2	3
37.(62) 나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자책한다	0	1	2	3
38.(64) 나는 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 살아야 할 올바른 판단을 얻고자 노력한다 ..	0	1	2	3
39.(65)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0	1	2	3
40.(68) 나는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0	1	2	3
41.(70) 나는 문제 상황을 가능하면 잊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42.(71)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	0	1	2	3
43.(73) 나는 문제 상황을 피한다	0	1	2	3
44.(75) 나는 기회를 엿보며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관망한다	0	1	2	3
45.(76) 나는 아무 생각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한다	0	1	2	3
46.(77) 나는 현재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0	1	2	3
47.(79)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0	1	2	3
48.(80) 나는 상대방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0	1	2	3
49.(81) 나는 문제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0	1	2	3
50.(83)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	0	1	2	3
51.(84) 나는 문제의 핵심이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고 생각한다	0	1	2	3
52.(85) 나는 나를 따뜻하게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0	1	2	3
53.(86) 나는 종교를 통하여 인생에서의 의미를 얻으려 한다	0	1	2	3
54.(89) 나는 화가 나면 소리지른다	0	1	2	3
55.(90)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능력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0	1	2	3
56.(91) 나는 문제 상황을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0	1	2	3
57.(95) 나는 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평소애 하던 대로 한다	0	1	2	3
58.(98) 나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	0	1	2	3
59.(99)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	0	1	2	3
60.(100) 나는 '이것도 내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인다	0	1	2	3
61.(102) 나는 나 스스로의 잘못을 채찍질한다	0	1	2	3
62.(103) 나는 나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0	1	2	3
63.(104)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하여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0	1	2	3
64.(105)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그만둔다	0	1	2	3

*주: 괄호 안의 문항 번호는 예비 척도에서의 번호임